

경제지주 폐지 등 개혁 예고...구조재편 수익성 강화 급선무

공약으로 본 '김병원' 농협 운영 방향과 과제

회원조합당 100억원 무이자 지원 강소농협 육성 중앙회 상호금융부서 독립법인화 수익률 높일 것 한중 FTA, 중국 농산물 유입 대응책 마련도 시급

12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치러진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원(63) 신임 회장은 "농업 활로를 개척하고 농민조합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농협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새 회장은 2015년 결산총회가 종료되는 3월 말부터 조합원 235만명, 자산 400조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8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을 책임지게 된다.

◇농협법 개정 등 파격 공약=농협법 개정을 통한 농협 경제지주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건 그의 행보는 당선 소식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농협은 그간 금융사업 등 비농업 부문이 비대해지면서 구조 개혁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고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신임 회장은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유통)을 분리해 각각의 지주사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지주사로 넘길 계획이다. 이 중 금융 부문은 이미 2012년 지주회사로 분리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했고 경제 부문은 오는 2017년 2월까지 분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신임회장은 이번 공약에서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1중앙회-1금융지주' 체제를 통해 경제사업을 농협중앙회로 다시 되돌린다는 얘기다.

또 조합당 평균 100억원의 조합상호지원자금을 무이자 지원하고 중소 농협을 강소농협으로 육성한다는 그의 계획도 눈여겨 봐야 한다. 선거전 그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RPC 60개소 지분을 인수해 농협할 시장점유율 60%를 달성하고 조합 출하 물량의 60%를 책임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RPC란 미국종합처리장(Ride Processing

Complex)을 가리킨다. 농협양곡의 쌀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우선 쌀 시장의 지나친 경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RPC를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그의 주요 전략이다. 농협양곡은 2020년까지 도마다 1개씩 총 7개를 인수하고 오래된 RPC를 40여개 정도를 건조해서 보관만 하는 비건조저장시설(DSC)로 전환하는 것이 그의 공약이다.

◇경기침체 속 과제=김 신임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경기침체 속에서 농협중앙회의 여건과 미래는 밝지 않다.

농협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7788억원에서 2014년 5227억원으로 줄었다. 2014년 기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농협은행은 14.02%로 국민은행 15.97%, 신한은행 15.43%, 우리은행 14.25%보다 낮다.

농협중앙회의 차입금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채자본금 12조원 가운데 현물출자를 제외한 4조5000억원이며 내년 2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허술하다.

경제사업은 2011년 17조1473억원에서 2014년 18조9672억원으로 11% 성장했으며, 이 기간 당기 순이익이 758억원 적자에서 763억원 흑자로 전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반면, 경제사업 성장에 차입금 증가를 불러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값싼 중국 농산물의 유입이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농업계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형권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장은 "중앙회와 지주회사가 산지유통이나 도매유통을 하면서 회원조합과 경합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중앙회는 컨트롤 타워 역할과 함께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남평농협 전 조합장인 김병원(63)씨가 임기 4년의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12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의원과 농협중앙회장 등 선거인 292명 가운데 289명이 결선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김씨가 163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연합뉴스

호남 출신 벽 허물고 삼수끝 극적 당선 '왕건이 탐낸 쌀' 브랜드화 전국 최고 순이익

김병원 회장 '오독이 당선' 화제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07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때를 되돌아보면 김병원 신임 회장의 당선은 '농도 전남의 경사'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쾌거다.

2007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호남 출신이 농협 수장은 될 수 없다'는 현실의 벽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김 신임 회장은 2007년 당시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결선에서 최원병 회장에 패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1차 낙선자들이 지역·학연 등으로 엮여 표가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 2차 투표에서는 1~2 위간 표차가 역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영남과 경기 등지의 표를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2011년 선거 때는 최원병 회장과 겨룬 유일한 후보였으나 역시 최 회장에게 상당한 표차를 패했다. 이후 김 신임회장은 최 회장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김 신임 회장은 12일 대의원과 농협중앙회장 등 선거인 292명 가운데 289명이 결선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163표를 얻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차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고도 지역적 한계 탓에 2차 투표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과반이 넘는 표를 얻어 승리를 거뒀다. 극적으로 세 번째 도전 끝에 꿈을 이뤘고 호남 출신 첫 민선 농협중앙회장이 됐다.

이번 선거도 쉽진 않았다. 김 신임 회장은 1차 투표에서는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 3선과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지낸 이성희 후보에 13표 차로 밀렸다. 결선 투표가 진행될 때까지도 조소스럽게 이성희 후보의 당선이 점쳐지기도 했다.

결선에서 불었던 이성희 후보도 비(非) 영남권인 경기 성남 출신이어서 결국 대의원 수가 87명으로 가장 많은 영남 표가 항배가 당락을 갈랐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영남 출신인 최규후 후보와 결선에서 불었으면 지역 대의원 수에서 밀려 김 신임 회장의 승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호남권 대의원은 영남보다 적은 64명이다.

또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호남 등 비영남권 대의원을 중심으로 차기 중앙회장은 비영남권 출신이 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현직 최원병, 전직 정대근 회장 모두 경북·경남 출신이다.

"농도 전남의 경사...호남 불이익 구조 개선 기대"

지역민 반응

나주 남평조합장을 지낸 김병원(63)씨가 호남 첫 민선 농협중앙회장에 뽑힌 것은 이 지역의 경사다. 그동안 농협의 수장이 경남과 경기권에서 독점하다 보니, 농협중앙회 주요 보직에서 이 지역 인사들이 포진하지 못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김 신임 회장은 남평농협 조합장을 내리 세 번이나 연임한 이 지역 출신이다.

지역사회 인사들은 대부분 김 신임 회장의 당선을 환영하며 반겼다.

농협중앙회장은 농축산물유통, 상호금융, 은행 등 31개 계열사에 8만여명 임직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의 수장이다. 비상임명예직이지만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에서 7억원대의 연봉을 받는 요직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의 당선으로 이 지역 인사들이 농협중앙회의 기획, 인사, 예산 등의 주요 보직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호남 출신이 농협 수장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뛰어 넘었다는 반응이다.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때를 되돌아보면 김병원 신임 회장의 당선은 '농도 전남의 경사'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쾌거다"고 말했다.

김 신임 회장은 2007년 당시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결선에서 최원병 회장에 패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1차 낙선자들이 지역·학연 등으로 엮여 표가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 2차 투표에서는 1~2 위간 표차가 역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호남권 대의원은 영남보다 적은 64명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2016년 01월 08일(금) ~ 01월 25일(월)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저 1층
 대표전화(062)234-3222팩스 (062)234-2941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패턴 : (2박3일) / (3박4일) / (4박5일)

1 January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7	28	29	30	31	1	2	31
3	4	5	6	7	8	9	7
10	11	12	13	14	15	16	14
17	18	19	20	21	22	23	21
24	25	26	27	28	29	30	28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로
 겨울방학 가족, 연인과 함께
 일본은전 여행을 즐겨보세요!

북큐슈/실속	선착순 24명	4일 성인/749,000원-펜션	어린이/719,000원
북큐슈/폼겨		4일 성인/799,000원-호텔	어린이/769,000원
아마구치/폼겨		4일 성인/899,000	어린이/849,000원
남큐슈/폼겨		4일 성인/929,000	어린이/879,000원
		4일 성인/1,049,000	어린이/999,000원

▶ 무안 ↔ 씨엠림 전세기 ◀
 - 수요일 출발 -
 씨엠림/양코르왓(3N) 4일 성인 /1,100,000원 어린이 /1,050,000원
 /1,180,000원 /1,130,000원
 씨엠림 골프 4일 36홀 /1,450,000 ~ 1,520,000원
 54홀 /1,550,000 ~ 1,620,000원

- 토요일 출발 -
 씨엠림/양코르왓(3N) 5일 성인 /1,110,000원 어린이 /1,050,000원
 /1,180,000원 /1,130,000원
 씨엠림 골프 54홀+양코르왓관광 5일 /1,550,000 ~ 1,620,000원

※당서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계통단 2003-1호)
 여행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여행비용상환1억원, 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법제정기,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여행사 등록(세무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경비없음(다.기생/가이드봉역료,선착관광,국공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성령에 따라 다름